

GRACE 선교소식

2025년 11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06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추수감사절을 맞아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GMI 선교사님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감사를 경험하자**”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GMI 은혜교회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있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주간 특별 새벽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편 136편을 통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왜 감사해야 하**

는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절정이며 예배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점은 26절 모두가 동일한 문장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후렴이 아니며, 창조에서 구속, 인도, 보호, 기억, 공급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전역사 속에 흐르는 감사의 리듬입니다. 저 또한 시편 136편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총 6번의 감사 메시지를 준비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은 창조에서 시작되고, 구원에서 확인되고, 광야에서 증명되고, 전쟁 속에서 드러나며, 비천함 가운데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새가족 환영의 밤: 12/4
- 은혜 성가제: 12/14
- 성탄 주일 예배: 12/21
- 송구영신예배: 12/31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선교지를 지켜 주시고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셔서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C국

장O / 김OO 선교사

지난주 옥수수까지 농작물 수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곳도 내몽골전통 추수감사절을 양을 잡아 목장마다 돌아가며 한달동안 지냅니다. 저희는 좋은 집주인을 만나 간증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내년 봄 목장주 아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단기선교로 오실 수 있다면 오셔서 저희도 응원해주시고 양도 잡고, 결혼식도 함께 축하해주고, 저희가 그동안 품앗이하던 곳들 땅밭기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연자원의 무차별 채굴로 가스가 많이 샌 날은 일기예보와 달리 하늘이 검게 물들고 예고에 없는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가축들이 떼죽음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땐 가스냄새로 두통약을 달고 삽니다. 심방갈 때 트럭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이곳은 2주 전부터 아침이슬이 서리가 되어 반짝반짝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엔 난방도, 전기도, 인터넷도, 상하수도 되는 곳입니다. 대부분 밖에서 보내느라 여전히 손발은 쫄쫄 얼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합니다. 한겨울 아기 양이 많이 동사해서, 올 겨울은 결혼식을 위한 목장주의 양 12마리만 저희가 돌보아 주



기로 했습니다. 2월쯤 어린 양을 입양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키우려고 합니다.

이곳에 한국인이 저 밖에 없어 수시로 우르르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 한달 밥값과 선물비가 이전 5개월치를 넘었습니다.

각 목장의 추수감사절, 저희집 집들이로 앞으로 성탄절까지 한달동안 만날 사람들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복음의 문이 열리길 함께 힘껏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새 보금자리에서 지경과 믿음과 비전을 넓혀주신만큼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N국

오000 선교사

저희가 건축하려는 'Logos Church Grace Center'의 위치는 N국의 힌두 왕궁 도시였던 B지역이라는 지역으로 힌두의 영이 그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역사하는 N국 제 2의 대도시입니다. 2025년부터는 교회건축을 법적으로 허락하는 법이 발효되어 건축부지 주인도 교회건축에 합의하여 부지 임대계약서가 올 5월 경에 준비되었고 지방자치국 소속 구조엔지니어가 도면을 준비하였고 모든 법적절차와 주민반대 공청회 기간도 거친 후 토지 측량을 하고 다음 날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지의 잡초제거와 청소를 하고 있던 중 교회부지와 제법 떨어진 곳의 주민들이 나타나 교회건축 반대청원서를 내밀었습니다. 청원서에는 거의 100명 정도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청회 기간도 지나고하여 지방 자치국에 들어가면 이 모든 일이 아무 문제없이 해결될 줄 알고 그날은 마칠을 피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국에 들어가니 모든 법적인 서류와 절차는 무용지물로 힌두 주민들의 무법적인 간청이 인정되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 목사 사모는 눈물로 항의해 보았으나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B지역 시장도 도와주려

고 미팅을 먼저 주선했지만 고개 숙이고 조아리는 시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이며 저희 쪽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온 교인이 동원되어 부지를 찾기 위하여 10월 한달을 보냈습니다. 7~9곳의 땅 주인들은 거의 힌두 교도들로 교회 건축 동의하지 않았고 땅 주인들은 주민들의 교회 건축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교회건축이 어렵지 않았는데 9월 N국 Gen-Z 혁명 이후 주민들의 결집력은 더 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 3일 월요일 하루종일 저와 로고스교회 목사부부는 너무나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길이 무엇인지 고민과 갈등의 대화를 밤 늦게까지 나누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적의 다음날 11월 4일 화요일 아침! 오전 9시경 동역자 목사님이 불도저로 잡초를 제거하는 짧은 영상을 보내와 설명을 들어보니 마지막으로 본 땅의 힌두인 주인이 교회 건축을 허락하였고 그 지방자치국은 같은 B지역 지구이지만 지방자치국 제재가 전혀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서 아침부터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시121:4)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밤사이에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가 그 지역을 둘러보니 저희가 처음 계약한 위치에서 대로 하나를 두고 서로 가까운 곳이었고 자세히 둘러보니 공장과 주택가가 복합된 지역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들어서기엔 너무나 조화가 안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B국 지방법원 건물 바로 옆 땅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실을 감수히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위치는 대로에서 10분정도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주변이 공장이어서 마음껏 기도와 찬양을 하여도 소음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미 4면으로 담이 세워져 있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아침 다시 일찍 현장에 도착하니 cement와 concrete block이 운반되었고 전기와 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업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동원되어 나와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국

강00 / 이00 선교사

행복 가득했던 아웅반 아이들의 소풍 이야기

“뽀뽀와 또와메노” 소풍을 떠나자라는 말입니다. 소풍이라는 말 안에는 행복한 날,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생계가 어려워 소풍은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해주신 초록색 잔디와 푸른 하늘이 펼쳐진 공원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 놀았습니다. 준비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행복합니다.

60명의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목이 쉬도록 서로를 응원하며 멋진 추억의 순간을 남겼습니다. 전날까지 비가 와서 걱정하며 선생님들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를 주시고 학부모님이 맛난 도시락을 저렴하게 준비해주시고 청년 선생님들이 스스로 준비한 게임



까지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Merry Christmas

소중한 “소풍”을 통해 저희들과 새롭게 인연을 맺은 20명의 귀한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을 성탄에 초대하려 합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발견한 순수한 기쁨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탄자니아 대통령 선거로 인해 인터넷이 불통이어서 줌미팅에도 함께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제 다행이 정상으로 소통되어 소식 드립니다. 선거에 불만을 품고 육지에서 데모하며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이 나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어서 불안하였는데,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정상을 되찾은 것 같지만 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즉각 하야와 사상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육지쪽에 이런 위험한 상황과 달리 잔지바르는 평온한 상황이 유지되어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신 은혜 감사 드립니다.

선거기간 동안은 위험에 대비하여 에버그린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조심하며 무사히 지냈고, 지금은 계속해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라스타 미장작업과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장작업은 이번주말까지 끝낼 예정이고 화장실은 다음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우기철을 맞아서 간간이 게릴라성 비가 쏟아붓고 있어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사에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제가 원했던 10월은 화창하고 산뜻한 느낌이었는데 9월 말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심한 감기에 걸려 한 2주 정도를 고생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납니다. 10월 한달 내내 햇빛이 나온 날수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고 흐릿하고 은근히 빠속까지 시려 오는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쿠키를 만들어서 접근하려고 했던 저의 의도는 날씨와 감기로 인해서 시도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랑계 단풍이 진 나무들을 보면서 나름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아주 조금씩 자연스럽게 사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나치게 답답하리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척이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사람들을 익혀 갑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종업원들과 인사를

하면서 알아 가고, 기타를 배우면서 이고르 선생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대화가 기본이 된 문화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곳도 유럽의 한 나라이기에 대화가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카페에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를 쌓아 가는데 있어서 언어는 필수입니다. 언어를 잘 하면 잘 할수록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어보다는 4배 정도, 스페인어보다는 3배 정도 어려운 이 보스니아 언어를 언제 유창하게 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준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언어를 못해도 넘어가지만 두번째는 같이 있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 음식을 나누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통해 관계를 쌓아 갑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식사를 합니다. 관계를 쌓기가 더디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 가겠죠!

광고 시작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일을 기념으로 이 곳 다리오목사님이 아일랜드에서 보내 온 기부금으로 거리 광고를 2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개혁, 신앙, 성경,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을 찬양'이라는 문구로 간단하게 복음을 전

하는 메세지입니다. 왜 눈에 확 띄는 원색을 사용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곳 이슬람 신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워낙 이 곳 제니짜에 90% 이상이 무슬림이다 보니 조심스럽다고 하더군요! 안타깝지만 이곳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18세가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찬양 버스킹도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스니아 내전(92-95년)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 전쟁이 카톨릭과 정교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에 이슬람 신자들은 더욱더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안에서 보스니아 내전을 통해 종교적으로 더 철저하게 서로를 배척하게 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기가 결코 만만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광고를 보고 신앙에 대해서 문의 전화는 왔냐고 다리오 목사님께 물어 봤지만 없다고 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길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멘!

비자 갱신

일년에 한번씩 5년 동안 비자를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 갱신준비로 10월 마지막 주는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서류를 준비했지만 아직도 한가지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뒷돈을 요구하지 않고 일단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자니아

정부진 / 조재숙 선교사

싸아테니 마을 우물 성공감사

7월 13일 싸아테니 마을 우물 성공해서 작은 선물들을 나누었습니다. 싸아테니 마을 주민들은 각 집마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기 전엔 주민들이 손으로 6메타 정도 판 회색 빛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귀한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탄자니아 목회자 성회와 다니엘 캠프 통역

7월 14~24일 아류샤바바티에서 이종선 목사님께서 다니엘 캠프와 그리스도 세계 군사 세미나를 통역으로 섬겼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세계 군사 세미나에 잔지바르에서 11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를 다녀온 후 목사님들마다 간증과 체험이 있고, 각 교회들마다 부흥이 되고 있는데, 3개월 만에 60명이 전도된 교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 잔지바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배반과 용서

7월 26일 본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열심히 사역하고 왔으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토 쫓겨나간 마귀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왔는지, 28명의 선생님들이 3개월마다 8%씩 월급을 올려 주지 않으면 학생들 국가시험을 망쳐 버리겠다고 노조를 결성해서 경고장을 보내 왔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성경을 통독하고 전도집회를 다녔는데 큰 시련이었습니다. 약 3일간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초 3, 4, 7학년과 중2, 4학년 국가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마음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선생님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몇몇 선생님은 아직도 거짓말을 만들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교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키티치교회 우물 성공 감사

8월 1일 키티치교회 우물 성공했는데 감사하게도 물이 맛있다고 바라키 목사님께서 전해왔습니다. 조금 떨어진 모스크에도 우물이 있

지만 물맛이 쓰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는 나오고 다음 날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교회에 물을 길으러 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물을 받아만 가지 말고 물을 떠갈 때마다 우물을 파주신 분들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염소 나누기

8월 10일 무아카제교회와 미충과미월리(오랜지 나무 두그루) 교회 고아 아이들과 한 부모 가정 아이들 12명에게 염소 1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염소 한 마리가 그 다음날 새끼를 낳아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팀 방문

8월 15일~22일 단기선교팀이 벽화를 그려 주고 키보제, 돌레, 키보요요, 키파게, 키디치, 미충과미월리, 무아카제, 키짐바니 마을주민들과 학교에 준비해 온 공연을 복음과 함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각마을들과 교회들에게 사랑의 선물 밀가루 400포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도소 2층 침대 선물

8월 25일 죄수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자면 찬기가 올라와 허리가 아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철로 된 2층 침대 35개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부서진 침대가 몇 개 있었지만 그동안 모두 시멘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죄수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교도소 청장님께서 국가의 재정상 도울 수 없었고 부모들도 외면한 죄수들의 환경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리비 A 지역 장에서 150명 섬김

8월 30일 마가리비 A 지역 장애우 150명에게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 5키로짜리 300포를 선물했습니다. 엔지옴들 중 항상 가장 많은 선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학생들

9월 3일 국가 시험을 앞두고 20명의 아이들이 한시간씩 함께 모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7



명의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아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무섭다고 하면서 기독교 아이들을 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키사우니교회 의자 선물

10월 10일 잔지바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섬기고 있는 정 선교사와 교우들이 키사우니에 있는 교회에 의자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새 의자를 선물 받은 나손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재외동포재단 한국 문화 알리기

10월 11일 재외동포재단 한국문화 알리기 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한인들이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한국 노래와 태권도, 민요등을 준비하여 한국 문화를 알렸습니다. 올해는 왕과 왕비복을 재외 동포재단에서 후원해 주셔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케냐 목회자 성회 그리스도 군사 세미나

10월 14~16일 케냐 목회자 120명이 그리스도 군사 세미나 통역으로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케냐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앵그리칸교회 어린이 전도집회 감사

10월 12일 앵그리칸 교회 어린이 전도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하고 학용품과 과자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선거와 안전

10월 29일 대통령 선거 후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루 속히 탄자니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1국

강00 / 이00 선교사

저희들 리유니온과 8기 졸업식이 11/3-6까지 있었습니다. 강의 하루 전에 모여서 사역과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4일부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한인교회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1국 신학교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은 다시 힘을 얻고 큰 우산 아래 있음을 느끼며 기뻐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리유니온과 졸업식에 선교사 파송이 있었습니다. 졸업생 중 1명인 4기생 수크데브가 내년 6월에 터키 선교사 훈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졸업생들은 매달 100루피씩 모아 수크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이지만 1국 신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GIGL부터 팀멤버에게는 500루피, 캔디에게는 1,000루피씩을 받기로 선포했



습니다. 김황신 목사님이 조금씩이라도 받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이 나온 김에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

이종하 / 정혜경 선교사

시즈오카사미르세이소교회 정선교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말에 다리골절로 기브

스를 하고 지내다 지금은 서포트를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는 주일에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다리도 불편하긴 하지만 골절상 이후 위의 통증이 심하고 기침이 쉬지 않고 나와 밤에 편하게 자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어제는 아침 7시에 시즈오카를 향해 같이 출발

했는데 계속 기침을 하고 힘들어해서 예배는 참석 못하고 자동차 안에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미에켄 스텔라의 교회에 헌당식이 있어 다녀서 저녁 늦게 나고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간증문 모잠비크 단기선교

저는 예수님이 제 삶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깨끗하게 된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이시면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인정하며 예배드릴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저는 거

룩함과 예배, 순종,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저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시며,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소원은 저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제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영적·육적 삶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과 열정을 제게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훈련)는 제 인생에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 시간은 제 삶과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제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메켈리나 프란시스코 조브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죄에서 멀어져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그리고 순종의 삶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자신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셔서 그분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증문 이집트 단기선교

강명희 자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사역자가 되는 경험은 종종 있었지만, 선교사님이 되시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엘리야스 선교사님은 제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살던 곳을 떠나 타지에서 사역하신다는 사실이 더욱 크게 와닿았고, 그래서 첫 이집트 단기선교에는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과는 달리 선교 일정이 바뀌면서 회사 상황도 있고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함께할 팀원들이 한 명씩 정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마음대로 가라”는 확신을 주셔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더 위에 약해서 여름에는 밖에도 잘 나가지 않는 편인데, 이번 이집트는 아침 10시만 넘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일주일의 여정을 건강히,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간의 준비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 금식으로 준비한 시간도 큰 은혜였습니다. 선교 전에 일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매번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붙들 수 있었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시 사역을 나갈 때마다 들었던 말은 “Welcome to Egypt”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졌고, 동시에 참 친절했습니다. 저희가 더워서 길에서 있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릴 때면 누군가 다가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주었습니다. 그 친절함 덕분에 더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로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알렉산드리아로 1박 2일 사역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커피숍에서 마치 인형처럼 생긴 시리아 무슬림 자매를 처음 만났고,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해란 간사님이 그 자

매와 직접 대화하며 복음을 나누셨는데, 그 자리가 참 특별했습니다. 저는 지은 간사님과 함께 다른 테이블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중보기도팀과 함께 와 있어서인지 열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간사님과, 웃는 얼굴로 끝까지 경청하던 자매의 모습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똑똑하고 아무진 학생이었는데, 그녀가 주님을 알고 가정이 변화되며, 또 그녀의 삶의 자리까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또한 그렇게 될 일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순간은, 알렉산드리아 바닷가에서 간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 바다 건너편이 이스라엘 땅이 아닐까?”라는 말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첫 해외 선교지였던 요르단이 떠올라, 그때 만난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 이 전 요르단 간증 때도 나눴던 그 친구에게요. 곧바로 답장이 왔는데, 경제적으로 힘드니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순간 막막했지만, 간사님께 나누고 기도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네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나도 널 위해 기도하겠지만, 너도 네 필요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과 함께 보냈습니다. 2년 전에도 주님을 전했지만 별 진전이 없던 관계가, 이번에 주님의 때가 되어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린 것을 생각하니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깨달은 것은,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을 만나지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혼들과의 관계를 성실히 이어가다 보니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 드린 시간과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 상황만 보면 이번 결정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했고, 간사님들, 전도사님, 목자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누군가에게 배우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을 나누고 알려줘야 하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했어서 제 경험을 전하고 들어주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에서는 사역자분들과 함께하다 보니 오히려 온전히 배우는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그것이 큰 감사였습니다.

그분들의 섬김과 믿음의 삶,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르단 선교 때는 낯설고 서툴러 그저 팀을 따라다니는 발걸음이었다면, 이번에는 걸음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품은 땅을 함께 밟으며 기도했고, 만난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함께한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혹시 주님의 일을 두고 기도 가운데 마음을 주신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그 마음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드린 시간에는 반드시 귀한 경험과 성장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동안 기도로 동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증문 선교학교 22기

이호산나 집사 / G10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 10을 섬기고 있는 이호산나 집사입니다. 그동안 월요일마다 다른 모임과 시간이 겹쳐서 선교학교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덕분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강의에서 한기홍 목사님께서 **“선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선교를 가면 열매가 없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가 은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은혜 교회는 한기홍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까지 영혼 구원과 사랑을 중요시 여기며 선교에 진심을 다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선교가 교회 사역 모든 면에 관련되어 있고, 사역들은 modality와 sodality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포함하고 있으며, 선교 동원이 양육 과정, 중단기 선교 등을 통하여 계속 되어지고 있고, 단순히 선교를 지원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함께하는 파트너의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선교학교 중간에 인도 개척선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 영혼의 가치’와 ‘복음의 시급함’을 직접 경험하며 느끼게 하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두번째 강의에서 안영식 목사님께서 **“우리는 마지막 끝자락 전쟁터에 있다. 전쟁에서 2등**

은 없고,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의 긴장감을 안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일상 자체가 영적 전장이라는 사실은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전쟁에서 2등은 없다’라는 사실은 제 영을 깨우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다시 깨어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최요셉 선교사님은 선교를 할 때 현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타협은 하지 않되, 그 문화의 언어와 정서로 접근해야 복음이 가장 적절하게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 가운데 나눠 주신 은혜 교회 GMI선교의 소련 합창단의 사역이 그들의 문화와 정서에 정확히 맞닿아 놀라운 통로가 되었음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의 요셉 선교사님의 사역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진, 조재숙 선교사님의 선교 도전을 통해, 파송되신지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음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혼신을 다해, 위험을 감수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시는 모습이 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네 번째 김돈수 선교사님 강의에서는 특히 음악 전공자가 아님에도, 해마다 하시는 VBS를 위해 이제까지 스페인어 아동 찬양 45곡을 작곡하셨고, 바디워십과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하셨다는 이야기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소명과 비전을 붙들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어 “우리세대는 부모님 세대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세대를 위해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셨을 때 마음이 철렁했고, 나도 지금부터라도 다음세대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를 심어야겠구나 결심했습니다.

다섯번째 강의에서 김도현 선교사님은 GMI 선교의 현지 전략을 설명하시며, 사역지를 먼저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일



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아마존 지역에서는 ‘개구리떼’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어 ‘독개구리’로 번역해야 의미가 살아난다는 사례처럼, 언어와 문화, 상황을 면밀히 읽어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됨을 배웠습니다. 또한, 구소련 사역 중 하바로스크 성경학교를 시작해야 한다는 김광신 목사님의 진단과 처방은 그 시대에 돌도 없는 통찰이었고, 목사님의 수년간의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었던 지혜였음을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목사님들과 권역 장로님들 말씀을 통해 저희 GMI 선교의 역사와 현재 사역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됐고, 십수 년간 묵묵히 동참하며 헌신해 오신 분들의 간증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선교대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뵈고, 또 간증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선교 학교에서는 최전선에서 전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강의를 직접 듣고, 대화를 나누며, 따끈따끈한 간증과 사역 이야기, 계획과 전략, 기도 제목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더없이 감사했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밤이 늦었는데도 남편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교회 선교의 스케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가 어떻게 더 참여할지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저도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효과적으로 쓰임 받기 원한다는 소망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과 은혜, 그리고 거룩한 동기부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선교사

1. 중학교 4학년 국가시험을 위하여(11월 17~26일)
2. 중학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채워지도록
3. 유, 초, 중 졸업식을 위하여
4. 키파게 B지역 우물 성공을 위하여
5. 돌레 센타 울타리 공사 재정이 채워지도록
6. 성탄절 주민 초청 복음 잔치를 위하여
7.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공간 임대를 위해서(공간 임대료를 위한 후원)
2. 비자 갱신
3. 언어의 성장
4. 건강

N국 오OOO 선교사

1. 교회부지 마련해 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2. 공사기간동안 부상자 없게 하시고 힌두인 업자들이 예수 믿게 하소서
3. 공사시간동안 방해하는 세력이나 도난사고 없게 하소서
4. 로고스 교회와 이슈아, 찬디가 담임 목사부부, 하OO 선교사가 이번 일로 인하여 더운 기도에도 힘쓰게 하소서
5. 로고스교회를 통하여 주택가 주민들과 주변 공장 직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6. Grace Center를 통하여 성도양육, 전도훈련, 기술학교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7. 이 교회를 통하여 B지역의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티후아나 전도폭발 훈련 및 전도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필리핀 태국 그레이스 캠프 (12/14-12/26)
S/L: 성은식 선교사
리더: 이창석 집사 (213-598-8845)
- 멕시코 노갈레스 인카운터 (1/18-1/23)
S/L: 이창기 목사
디렉터: 김대규 장로
문의: 전홍준 집사 (714-914-9980)

- GMI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2/23-2/26)

문의: 이희경 집사 (714-337-3091)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